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1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10호

"복지 필요 대상자에게 혜택 더 줘야"

원 지사, 도의회 보건복지 분야 도정질의 답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지난 달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47회 2차 정례회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도정질문에 답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도지사의 복지철학과 함께 자신이 발의한 적이 있는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에 관한 도지사의 생각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야만 하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답한 후 보편적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국가를 예로 들며 "모든 부문에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려면 모든 국민이 40% 심지어 60%까지 조세부담을 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제주도의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조화롭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에 관하여 원 지사는 "관광객도 쓸 수 있는 공중화장실 배치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당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리대 부담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만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분권 비분권 간에 임금격차 해소,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정책 '제주처럼'을 통한 여성복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및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복지정책 발굴' 등에 더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특히,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주거복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읍면동 도심지에 대대적으로 보급확대를 약속했다.

희망2017나눔캠페인 출범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달 2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희망2017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했다. 출범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진행된다.

▲ 지난 달 4일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민들레카 차량을 기부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나눔 싣고 달려요"

도시가스협회, 사회공헌사업 민들레카 차량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푸드마켓(회장 고치환)은 지난 달 4일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로부터 '민들레카' 소형 차량을 전달받았다.

'민들레카'는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에 여행용 차량을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량 공유형 사회공헌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여가문화를 지원해 심리적 거리감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제주도 지역의 경우 차량공유의 제약으로 제주도시가스와 함께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지원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푸드마켓이 선정되어 소형차량인 레이를 지원받게 됐다.

사랑나눔푸드마켓 관계자는 "소규모 물품 수령, 신규 기탁처 발굴, 이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이동업무에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도시가스협회에서 더 많은 취약계층에 기부식품이 전달되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차량을 지원해 준만큼 더 많은 이용자들이 기부식품을 전달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면소개

- 종합 ····· 2~3면 '복지정책 위한 사회복지연구센터 설립' 가결
- 사회복지소식 ····· 4~5면 제13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폐막
- 오피니언 ·····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 7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 특집 ····· 8면 시설탐방(82) - 한사랑지역아동센터

JDCar를 대여해 드립니다

이동약자의 발이 되어 드리는 **복지용 특장차량 대여서비스**

도내·외 사회복지시설(단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통한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JDC 지원으로 **'복지용 특장차량(JDCar)'**을 대여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단체) 비영리기관 × **지원용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지원 × **승차정원** 6인 (휠체어이용자 2명 탑승 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복지정책 위한 사회복지연구센터 설립'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소속 강익자, 김천문, 박규헌, 유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0-1362)이 지난 달 29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개발 등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명절·연말 위문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 신설된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운영(안 제22조의2)을 위한 예산은 전액 도비 일반회계로 운영될 예정이며 2017년 배정된 예산은 총 7억원이다.

센터는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컨설팅, 사회복지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지원(안 제26조의2) 내용도 새롭게 신설되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명절·연말 등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난달 29일 제3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회복지인 소통·힐링행사 개최

시설종사자, 복지담당공무원 등 300여명 참여

제주시에서는 지난 달 19일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사회복지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사회복지인 소통·힐링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와 공무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위생국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몸빼입고 도를락, 발풍선 터트리기, 끌멍땡기멍, 화합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양술생 사회복지위생국장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나 공무원들이 항상 열린마음으로 시민에게 희망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주는데 대하여 작지만 위안을 주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아동·여성폭력 방지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이은희)은 2016년 여성폭력방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달 25일 여성가족부 주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아동·청소년 폭력예방사업 추진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뤄진 결과이다.

제주도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방지를 위해 여성폭력 발생시 현장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는 Hot-Line대응시스템구축, 지자체 최초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운영,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범죄취약지 공공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여성 안전시책 추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과 연계한 이혼위기가정 월 1회 의무 상담을 월 5회 이상으로 늘려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이혼접수건수는 1.85% 증가한데 비해 이혼 확인건수는 4.29% 감소하였고, 취하건수 는 5.83%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여성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확대를 위해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확대 및 여성안전 사각지대 취약지역 조사 등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사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SGI서울보증, 저소득가정 겨울나기 난방물품 기탁

SGI서울보증 중부지역 본부(본부장 송병철) 및 **제주지점(지점장 한승렬)**에서는 지난 달 22일 제주시장 집무실에서 사회공헌활동 관련 500만원상당 겨울나기 후원물품을 제주시에 기탁했다〈사진〉.

SGI서울보증은 제주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파악 요청해 전기매트 14가구, 이불세트 12채, 온수기설치 1가구, 책걸상 2가구, 전기압력밥솥 등을 구입하여 30가구에 전달했다.

고경실 시장은 "예부터 우리지역은 수눌음으로 십시일반 조금씩 마음을 모아 함께 나누는 정이 있으니 올 겨울도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눔운동에도 많이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푸드마켓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1월 기탁 현황

▲금강수산유통=수산물 45봉 ▲금강축산유통=축산물 207kg ▲김치원=김치 30kg ▲꽃비나리는뜨락=떡 234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612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106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3,832개 ▲모앙=제과류 74봉 ▲빠라빠빵=식빵등 223봉 ▲손뜻모아봉사회=가래떡 80kg ▲신화유통주식회사=고추장등 447개 ▲얌얌영농조합법인=빵 36봉 ▲에스에이치유통=견과류등 290봉 ▲유진상사=오뚜기식품 2,130개 ▲이든이네=건멸치 9kg ▲자연드림 이도점=빵 151봉 ▲제주보리촌=보리빵 480개 ▲(주)푸른제주=제과류등 554kg ▲캣어클락=식빵 34봉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 104봉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주방세제 80kg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245봉 ▲아라어린이집=카레 600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6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5,000	0
자원봉사후원	350,000	350,000
복지사업후원	935,000	892,530
푸드마켓후원	3,365,000	3,306,5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윤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체계 필요"

복지공감아카데미 개최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지난 달 2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주제로 2016년도 복지공감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박차상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박관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김수연 KT 차장, 최인옥 전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소수라는 이유로 복지나 교육정책에서도 소외된 시청각장애인의 현실을 비판하며 국내에선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아 규모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의 총 인원은 8929명이지만 두 가지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수를 조사한 사례는 없다. 국내로 시야를 넓혀도 시청각장애인이 5000~6000명 정도 될 것이라 추정 될 뿐이다.

제주도농아복지관 관계자는 "제주도 차원에서 범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센터 설립과 지원 체계를 담은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곧 다가올 시청각중복장애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준비할 사회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아카데미의 의미를 밝혔다.

수눌음 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3일 삼화2차부영아파트에서 '수눌음육아나눔터' 제1호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눌음육아나눔터'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핵심과제로 마을에서 이웃끼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 돌봄을 할 수 있는 자발적 지역 돌봄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다.

제1호점인 삼화2차부영아파트 수눌음육아나눔터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운영되며 아이들에겐 놀이와 체험을, 부모에겐 육아정보 공유 및 육아나눔 등 소통·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수눌음육아나눔터가 개소됐다"며 "2018년까지 전 읍면동 43곳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난 달 3일 삼화2차부영아파트 관리동에 마련된 제1호 수눌음육아나눔터에서 원희룡 지사와 주민들이 활짝 웃고 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좋은인연봉사회 창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좋은인연봉사회(회장 고영찬)**는 지난 달 18일(금) 탐라가든 2층에서 창립 16주년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자원봉사연합회 임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에서 김순자 회원이 우수봉사자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여 받았다.

고영찬 회장은 "열심히 함께 해준 회원 분들이 있어 이 자리에 왔다"며 "20주년 30주년까지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직능단체장 현장의 소리 전달

15일 도의회, 21일 도지사 간담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위원들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사회복지직능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사진〉**.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 도내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시·도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직능단체장들이 사회복지현장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윤흥기 종합사회복지관 협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별 최소인력배치 권고기준인 11명까지 충원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고, 안근보 도노인복지협회장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시내중심 법인요양시설로 종사자가 몰리고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농어촌지역 요양시설종사자를 위한 교통비 신설을 건의했다.

한편, 도의회 간담회에 이어 21일에는 원희룡 지사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직능단체장 간담회가 탐라가든에서 개최됐다.

'사랑의 집고치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회장 원석철)는 지난 달 20일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도내 저소득가구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이번 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4가구에 적용된다.

손뜻모아, 떡국떡 전달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강행옥)는 지난 달 7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나눔푸드마켓에 떡국떡 80kg을 기부했다.

협의회 소속 지역봉사단으로 매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손뜻모아봉사회는 작년에도 떡국떡 80kg을 기부한 바 있다.

우수VMS인증요원 연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동안 서울·경기지역에서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인증요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중앙관리본부 견학 및 다양한 문화체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제13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폐막

경기도 1위... 제주도 선수단 종합순위 7위로 마무리

대한농아인체육연맹(회장 채태기)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체육연맹(회장 박춘근)이 주관한 제13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가 지난 달 12일 제주종합운동장 내 애향운동장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소통의 섬, 제주에서 희망품고 미래로' 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7종목 585명의 선수와 임원, 심판, 기술위원, 수화통역사와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은 볼링, 태권도,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5종목에 34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 종합순위 7위에 자리했다.

▲ 지난달 10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전국농아인 체육대회 개막식.

박춘근 회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체전이 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회장 원희룡)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라며 "전국의 시도 선수단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되어 앞으로 농아인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4·3 희생자 및 유가족 심리지원사업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문두)는 지난 달 20일 4·3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중 사례관리자로 등록된 등록자와 가족 49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동행'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나들이는 가족과 함께 도내 관광지를 둘러봄으로써 가족구성원간 소통의 기회를 높이고 같은 경험을 한 대상자간의 만남을 통해 4·3에 대한 트라우마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6년 3월부터 4·3생존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동백사랑방' 상담실 운영, 사례관리, 정신건강 의료·상담비 지원, 찾아가는 치유프로그램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우수기관' 선정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금호리조트에서 진행된 '2016 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결과 보고회' 에서 전국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17개 센터에 대해 이뤄졌으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188점 중 176점의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조직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연계 및 홍보로 나눠 실시됐으며 제주센터는 조직운영 및 관리·인적자원 관리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에 실시된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10주년 기념식 개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지난 달 10일 유관기관 단체 및 기관장, 복지시설 종사자, 후원·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기념식은 복지관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과 지역복지발전과 증진을 위해 수고한 분들에 대한 표창 수여로 진행됐다.

또한 새로운 슬로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복지 실현' 을 발표했다.

가파도 찾은 이동복지관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윤흥기)는 지난 달 16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으로 가파도를 찾았다.

이날 찾아가는 복지관은 도내 9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동홍동복지위원협의체, 혼디모영 봉사회 등 10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등기구 교체,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에서 보행보조기와 지팡이 지원이 이뤄졌다.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참여자들이 해안가 환경정리를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은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함께하는 복지, 참여하는 복지를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며 "2017년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2016년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달 4일 테마여행, 18·19일 1박2일의 가족캠프를 다녀왔다〈사진〉.

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부모와 비장애인형제자매 등 가족들이 양육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힐링캠프, 체험여행, 문화체험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지지,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소/식/마/당

‘김만덕 나눔 큰잔치’ 성료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지난 달 13일 ‘제1회 김만덕 나눔 큰잔치’를 김만덕 기념관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만덕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샌드아트 공연과 조주선 명창(한양대 교수)의 판소리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사랑의 먹거리 나눔, 김만덕 오감 체험 전시, 나눔도서관, 아나바다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국문화와 역사를 배워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는 지난 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의 ‘다문화가정 한국 문화, 역사 탐방’을 제주농협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다녀왔다.

다문화 가족 총 39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DMZ 견학, 엄마와 함께하는 카프라 프로그램, 농업박물관 관람을 통해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노년을 활기차고 아름답게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성가정노인복지센터(원장 이정애)는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백세인생! 노년을 활기차고 아름답게’ 일환으로 지난 달 12일 아쿠아플라넷 제주를 다녀왔다.

일상생활 활력증진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이번 문화체험에는 12명의 어르신 및 가족들이 참가해 수족관 및 수중뮤지컬 ‘세나를 찾아서’를 관람했다.

장애아동청소년 자세보조용구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위드알앤에이(대표 홍성태) 후원으로 지난 달 14일 장애아동·청소년 2명에게 자세보조용구를 전달했다.

장애아동·청소년의 학습기회 증진과 사회참여를 늘이기 위해 전달한 자세보조용구는 휠체어에 장착하는 몰딩형 보조기구로 장애 및 성장으로 인한 신체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 지원됐다.

‘2016평생학습축제&자원봉사day’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 달 17일 ‘2016 평생학습축제&자원봉사day’를 본관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평생교육 축제는 복지관 동아리 및 평생교육 강좌별 성과물(문인화, 캘리그라피, 목공예작품 등)을 전시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우쿨렐레, 오카리나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먹거리코너도 운영했다.

제주시희망원, 영상기기 기증받아

제주시희망원(김숙희 원장)은 지난 10월 26일 동제주·대구88로타리 클럽(권대성, 송옥희 회장)으로부터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용 영상기기를 기증 받았다.

로타리클럽 공동봉사사업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노숙인들의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 소개와 함께 기증된 영상기기를 활용한 추후 계획 및 노숙인의 권익향상에 관한 부분에 의견을 나눴다.

제주양로원, 가을 음악회 실시

제주양로원(원장 신현권)은 지난 10월 29일 (사)제주실용음악협회(JAMA)에서 ‘제주양로원과 함께하는 가을길’ 음악회를 실시했다.

콰이어차임과 우쿨렐레 연주로 구성된 이번 음악회는 어르신의 우울감 해소와 정서적 심리적 지지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목표로 하는 음악치료프로그램을 통해 기획 됐으며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창암, 만남의날 행사 개최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 달 12일 자원봉사자·후원자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를 원내 체육관에서 진행했다.

청암재활원 이용인 및 이용인 가족, 30여개의 자원봉사팀, 20여명의 후원자,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봉사팀이 준비한 공연과 시상식으로 이뤄진 1부와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 상호 교류 게임을 즐기는 2부로 나눠 운영됐다.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제주케어하우스(원장 홍영진)는 지난 10월 29일 영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16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우수봉사단체(제주양돈농협, 하나봉사단, 세·빛·사)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이뤄졌다. 탐모라봉사단장은 “자원봉사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홍익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강임)는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중이다.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눠 주 2회씩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실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영어회화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동들은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는 장점이 있다.

희망나래도서관 개관

원지역아동센터(센터장 신상오)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사회공헌활동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으로 지어진 원지역아동센터 부설 작은 도서관 ‘희망나래 도서관 140호’ 개관식을 진행했다.

신 센터장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책을 접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작은도서관 공간을 지역사회에도 개방해 공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향기가 있는 사회로 한걸음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향기가 있는 사회로 한 걸음’ 프로그램을 지난 9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춘 단계별 반복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강사를 섭외해 주 2회 실시한다.

시론

불확실성의 시대

한 해의 끝자락에 구름처럼 몰려든 100만 명의 성난 민심은 수도서울의 도심한복판을 가득 채웠다. 주체하기 힘든 공분에 동시 분출된 분노와 함성은 국내 여느 도시는 물론 전 세계로 울려 퍼졌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직접 표출하는 국민들의 절규이며 저항이다.

촛불로 타오르는 성난 민심

먹구름 소용돌이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없는 불확실성으로 전국을 뒤덮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꼬. 최고 권력자와 주변 추종자들, 일개 아녀자 무리들의 끝없는 탐욕의 부조리는 국정곳곳에 스며있다. 희대미문稀代未聞의 국정농단사태를 보며 주체할 수 없는 공분은 개탄스러움을 더해 전율을 느낀다.

일개 아녀자 무리들이 부패권력과 야합하여 호가호위한 국정농단사건은 최고조의 국정혼란을 야기하며, 전 국민의 공분을 폭발시키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실상. 파헤칠수록 가관인 부정부패의 실체. 과연 이들의 부조리는 끝이 어디인가.

불신은 부정적 사고를 유발한다. 대통령담화가 있었으나 이를 믿는 국민은 많지 않고 공분만 더해질 뿐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검이라면 몰라도 수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글쎄다. 최고 권력자가 관련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권위와 신뢰를 잃은 공권력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찌들고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국내정세의 불안과 고립과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장래가 불확실해서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총수소환과 수사, 게이트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단위기 등 경제는 더욱 움츠려들고 있다. 빨리 이 난국이 수습되어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구름처럼 운집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외치고 있다. 공권력의 권위와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사태해결이 요원하고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나라를 덮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농단실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범법자들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위정자와 정치권의 큰 타협과 결단이 요구된다. 개인과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어야만 한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조국과 국민은 영원하다.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기고

장애인복지는 왜 필요한가?

고은영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처우개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큰 사안이다. 서민의 삶이 퍽퍽해진, 자칫 관심이 소홀해 지기 쉬운 요즘에 장애인 복지가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첫째, 장애인 복지의 문제는 당장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천적 장애인이 되는 경우보다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때문에 장애인 복지는 지금은 비장애인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문제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88.9%ㅁ가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인이었다. 유명가수 클론의 멤버 강원래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모TV 프로그램에서 휠체어 체험을 한 적이 있었다. 애석하게 휠체어 체험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의해 실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이런 사회적 장치가 없다면 어떨 것인가?

둘째는 장애인 인적 자원의 활용과 관련 있다. 바꿔 말해 장애인 인력의 사회적 진출 및 참여의 문제이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다양성이 보장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이민자 등 소수자의 사회적 역할은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자칫 모멘텀을 잃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 사회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복지는 필요하다. 유능한 인력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이라는 장벽 하나 때문에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 생산성 측면에서 이런 자원들이 사회적 장벽 때문에 생산 인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장애인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라도 장애인 복지는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는 우리 사회의 분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문제, 노인에 대한 공경, 모성에 대한 보호와 같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칼럼

인연이 다할 때

난은 인연이라 한다.

예전부터 머리맡에 놓고 싶던 게 난이었다. 한란은 귀해 구경도 못하니 춘란이면 어떠냐 했지만 그도 한 촉 손에 닿지 않았다.

우리 집 이층에 세 들었던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결혼해 서울로 떠나면서 피아노 위에 놓던 난을 남기고 갔다. 난과의 첫 인연이다. 이듬해 겨울 일곱 송이를 피웠다. 하도 가슴 두근거려 잠을 설쳤다.

인연이 이어졌다. 난에 지극한 이에게서 한란 여러 촉을 받았다. 뿌리가 우윳빛인 어린 것들이었다. 난은 누가 또 아무에게나 주고받는 게 아니다. 난을 준 이는 교사로 내가 가르친 제자, 이 선생이다. 사제지간의 연이 난 인연으로 이어진 셈이다.

어린 것들을 몇 번 잇따라 갖고 왔다. 그때마다 내게 건넨 말이 있다. "난은 키우는 재밉니다. 한 번 키워 보시지요" 인연의 단초를 완곡하게 풀어 놓는 그의 화법이 우애로웠다.

인연의 단초,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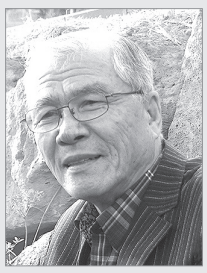
'그래야지. 잘 키워야지' 고맙게 받아 여간 공들이지 않았다. 난분이 불어나자 집 앞 테라스에 통유리 문짝 넷을 달아 난실을 냈다. 난에 기울이는 정성도 지극해 갔다. 메모한 걸 잊고 넘어가는 일은 있어도 물주는 건 잊은 적이 없다. 영양제를 꽂고 젖은 약솜으로 이파리를 닦아 주기도 했다. 그러면 난은 번드르르 윤기로 제 본연을 내놓으며 들썩이곤 한다.

한데, 난과의 인연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퍽 하면 죽어나간다. 쉬이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다. 상처는 쉬 아물지 않는다. 집 뒤란에 빈 분들이 다한 인연의 깊은 자국으로 줄을 짓고 있어 눈이 갈 때마다 아리다.

아끼던 난이 어느 날 갑자기 무뚝뚝해졌다 싶으면 이내 사색(死色)으로 진행한다. 누르께하다 사흘에 못 미쳐 숨을 놓아 버린다. 심폐소생술도, 기사회생의 처방도 없다. 손 놓고 눈 껌뻑이다 밖으로 내놓고선 막막하매 먼 산만 바라본다.

"어쩔 수 없지요, 연이 다한 건데" 집에 온 이 선생과 난실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 난과의 이별을 말하자 그가 한 말이다. 난을 '키워 보라' 할 때완 달리 그의 목소리가 명료한 건 왜일까. 답이 간명하니 여운이 깊다.

난뿐이랴. 까닭 없이 곁을 떠나는 건 야속하다. 가는 사람 잡지 말라지만 사람의 일이란 게 어디 그런가. 난 하나가 잎이 싯누렇다. 인연이 다한 건가. 정인과의 이별처럼 가슴 철렁한다. 내놓으며 또 가슴 엔다.



김길웅
시인·수필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규제 완화-민간복지 육성·지원-인증제 도입 필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후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흔들
현행 ‘집행·운영과정’ 과다 제한, 사회복지서비스 창출 저해
사회복지인력의 질적관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직결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위원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는 지난 달 9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차흥봉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주제로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설명하며 “그 동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의 민간사회복지 발전에 관한 적극적 역할이 부족하고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에 대해 “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공공전달체계에 관한 부분이 모두 이관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법적 성격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며 민간복지활성화를 위한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 하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기업체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도 집행·운영과정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접목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창출이 저해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자발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 단계에서 규제완화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호경 한국노인복지관협회장은 2004년 지방분권화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지방에 이양은 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정비가 미비 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담당자에 따라 달리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운영예산이나 인력배치, 사업의 지속성, 책임성 부재 등 기관운영에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위탁 기준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여 공적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내실화를 법 개정방향으로 꼽았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전면개정에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복지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관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고 시·군·구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민간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며 민간복지 대표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 강화 및 기능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형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지면서 사회복지사의 양적팽창을 이뤘으나 자격증의 과다공급, 교육기관 난립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인력의 질적 관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직결됨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사 인적자원관리 법안 제정과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제도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 법개정이 필요함을 얘기했다.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째, 과목이수 및 최소학점 규정이 적절한지 둘째, 유사한 학과명칭으로 사회복지전공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학문적·실천적 정체성을 약화시는 것은 아닌지 셋째, 전문인력의 과잉공급이 전문성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교육의 질적인 관리방안으로 가칭 ‘사회복지교육평가인증기관’의 설립과 실습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에 사회복지전문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교육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순욱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권혜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서기관이 패널로 참석,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리 – 김동주 사원〉

▲ 지난 달 9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사업법,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발표자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시설탐방 ▶ (82)한사랑지역아동센터

긍정적 자아로 세상과 소통하는 리더들의 꿈터

올바른 인성 ·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작은 집

▲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재능발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림에서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한사랑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미정, 이하 센터)**는 제주 전통의 돌담길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작은 항구를 낀 농어촌 복합지역 한림은 제주의 다른 지역보다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 조손가정 비율이 높고 그로 인해 방임 되어지는 아동들이 많았다. 한사랑 교회의 김승종 목사는 어른들에게 방치되어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워 식사를 제공하고 마음을 위로하며 돌보는 활동을 했고, 이런 김 목사의 활동이 기반이 되어 2005년 한사랑지역아동센터가 개관하게 됐다고 센터의 역사를 설명했다.

현재 27명이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센터는 총 29명이 이용할 수 있지만 긴급하게 보금자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27명을 정원으로 하고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다문화 아동이 9명으로 33%를 차지하고 남자 아동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센터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에 많은 신경을 쓴다.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 난타 교실과 더불어 서부보건소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 이 그렇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 클라이밍' 은 아이들의 도전의식과 끈기를 키우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어 아이들의 정서적 지지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

한수풀 도서관과 연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랭프유스와 함께하는 영어교실, 남녕고 과학반과 함께하는 과학교실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다.

센터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올 3월부터 실시한 '금관 5중주' 라고 답했다. 아이들이 난타를 좋아하지만 팀을 이루어 화음을 만들어 내는 난타의 특성상 한 두명이 빠져 팀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원하는 연습이 되지 않아 곧잘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고민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만의 특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란 고민은 지역에 위치한 한림공고 밴드부와 경찰군악대에서 힌트를 얻게 됐다. 이 두 곳에 재능기부를 요청했고 아이들의 개인악기만 구비되면 재능기부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내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운영의 애로점을 묻는 질문에는 센터가 시내와 떨어져 있는 읍지역에 있어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랭프유스와 같은 외국어 봉사단은 시내와 떨어진 읍·면 지역 위주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자원봉사자 및 단체, 프로그램 강사들은 시내와 떨어진 읍·면 지역은 꺼려한다고 했다. 이 부분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센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묻는 질문에 김 원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잠시 보호하고 1차원적인 케어만 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라며 "순수한 탄소가 고온·고압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되듯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에 꿈을 잃지 않게 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지역사회의 리더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37

업무방해죄란?

황 인 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우리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를 범죄로 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인데 여기의 '업무' 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한다' 는 것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 불만이 생겨서 담당자나 사무실을 찾아 항의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때로는 정도가 지나쳐서 업무방해로 처벌이 되는 사례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

◆ 업무방해의 사례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문제 혹은 부작용이 생긴 경우 병원을 찾아 항의를 하는데, 가족들이 교대로 항의 내용이 적힌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의 한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 여러 명이 몰려 가서 합의를 하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업무방해에서의 '위력'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업무방해에서의 '위력' 은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업무의 중요한 수단인 전화 통화가 지나친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농협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농민이 4개월간 수시로 총 2200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사안에서 행위자에게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에 애완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 매장 내에 돌아다니거나 용변을 보게 한 사람에게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불만이 있어 표현을 하거나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불미스러운 결과가 생기게 된다. 내 업무가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업무도 중요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대다.